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<b>배포일시</b>	2020. 8. 27(목) 총 2매(본문2)	
<b>담당 부서</b>	건설안전과	<b>담당 자</b>	• 과장 한명희, 사무관 안일찬, 사무관 현기창 • ☎ (044) 201-3573, 4593, 3584
<b>보 도 일 시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국토교통부, 구리시 지반침하 사고 관련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착수 - 2달간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·운영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8월 26일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도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,
  -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“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”를 구성·운영한다고 밝혔다.
    - \* “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”는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, 사망자·실종자·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지반침하사고에 대하여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 가능(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)
- 위원회는 서울대 정충기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·학·연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하여 8.28부터 10.30까지 약 2달간 활동할 예정이며,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.
  - \* 8.29(토)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착수회의 실시 예정(현장)
- 근본적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수도관, 지반, 터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\*하여,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,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.
  - \* 위원장 외 터널 2명, 토질·지반 3명, 수리 1명, 법률 1명

-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“이번 사고조사는 주변 지하매설물 상태 및 인근 공사현장과 지반침하의 연관성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”이라고 말하며,
- “아울러,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 
건설안전과 안일찬 사무관(☎ 044-201-459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